

<p>9.</p> <p>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</p> <p>영화(映畫)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.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(群)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깔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.</p> <p>우리도 우리들끼리 깔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. 주저앉는다.</p>	<p>10.</p> <p>수선판에게 정호승</p> <p>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</p> <p>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의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</p> <p>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.</p>
--	--

<p>11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신을 보았습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용운</p> <p>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.</p> <p>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.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려 이웃집에 갔더니, 주인은 "거지는 인격이 없다.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.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."고 말하였습니다.</p> <p>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,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.</p> <p>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. "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.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."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.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.</p> <p>아아 온갖 윤리, 도덕,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.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, 인간 역사의 첫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,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.</p>	<p>12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깃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유치환</p> <p>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. 저 푸른 해원(海原)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.</p> <p>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(理念)의 풋대 끝에 애수(哀愁)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.</p> <p>아! 누구인가?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아는 그는.</p>
--	--